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국가단위의 경쟁보다는 지방단위의 경쟁으로 체제전환을 하는 게 세계화시대 경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지방화전략을 채택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송도테크노파크 준공을 축하합니다. 인천지역의 혁신발전토론회를 갖는 걸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의 2류 변방국으로 머물 것인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서있습니다.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경제활동무대가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되면서 모두들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국가들은 국가단위의 경쟁보다는 지방단위의 경쟁으로 체제전환을 하는 게 세계화시대 경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지방화전략을 채택합니다. 한국의 경우 그 점에서 지방화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방화전략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혁신역량 통해서만 경쟁이 가능합니다.

지방이든 중앙이든 전체적으로 결국 경쟁의 전략은 혁신으로 가야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빠른 경제성장 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 하에서의

요소투입 성장이고 그게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혁신역량 통해서만 경쟁이 가능합니다.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동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혁신발전 토론회를 합니다. 인천은 매우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모든 도시가 각기 비전을 갖고 있지만 인천은 가장 비전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도시는 인천이 꼽히고 동북아에서 가장 활력 있을 도시로 역시 인천을 꼽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인천시에 격려를 보냅니다.

혁신역량의 핵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자본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미 한국이 자본이 과잉됐거나 곧 과잉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발전이든 국가발전이든 핵심은 돈이 아니고 결국 혁신역량의 문제입니다. 혁신역량의 핵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한국사람 우수한건 세계가 인정합니다. 다만 부족한 건 사람사이의 협력관계가 선진국만큼 활발하지 못합니다. 개인 간의 관계가 정보를 활발히 교환하고 거기서 공동의 비전을 만들고 공동비전을 향해 모두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개인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크게 발휘되므로 결국 사람과 혁신의 네트워크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게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이고 혁신연구회, 혁신클러스터라는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천이 자기비전 가지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토론합니다. 뜻 깊은 출발입니다. 한국에 한국인이 잘 보이지 않고 지방에 지방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 한국인이 보이지 않는 건 각 지방에 가면 한국전체를 공동체로 사고하는 틀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해서 말을 지어봤습니다.

지방에 지방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지방에 가면 지방의 자주발전의 의지라든지 계획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부족했습니다. 지역발전은 중앙정부가 계획 세우고 돈 주고 발전시켜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중

양정부가 상당한 자금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이 경쟁하고 있고 그 과정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효율적인 계획을 가진 곳에 중앙정부의 자원이 가는 게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중앙정부를 쳐다보고 의존해선 성공 못합니다.

결국 지역은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스스로 만들어서 추진해야하고 중앙정부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원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스스로의 발전전략, 의지 갖춘 지방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쳐다보고 의존해선 성공 못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렇습니다. 지역발전 전략 지원하되 가장 혁신의지 강하고 성공가능성 높은 지역에 자원을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지방에는 지방적 사고를 가진 지방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걸 심리적으로 독려하고 점검하기위해 지방계획 세웠는데 인천이 제일 첫 번째로 토론합니다. 다른 지역도 준비하겠지만 인천이 가장 앞선다는 선입견을 갖고 왔습니다. 토론을 지켜보고 느낌 말하겠습니다. 토론에는 건의나 질문도 있겠지만 모아서 의견 말하기로 하고 오늘 토론이 활발히 이뤄지고 그게 인천의 혁신발전의 큰 출발점이 되도록 치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